

62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차수	2차
일시	19. 12. 09. 18 : 30
장소	총학생회실

참석확인 (9 /13)

간호	경경	공대	사범	사과	약학	예술	인문	의학	자연	동연	부총	총
○	○	○	○	○	X	X	○	X	X	○	○	○

□ 보고 안건

1. 단위별 특이사항 보고

- 총학생회 야식판매사업 12/12(목) 18:30 진행
107관 학생회관 앞 야외 공간에서 '마피아42' 이벤트 상품 치킨(500박스) 배부 병행
- 간호대 12/13(금) 18시 진행
- 경영경제대 12/11(수) 18:30 진행
- 공과대 12/12(목) 1차 간식 사업 진행
- 사범대 12/12(목) 19시 진행
- 인문대 12/11(수), 12(목) 19시 진행
- 동아리연합회 12/10(화) 진행
- 사회과학대 재선거 3월 진행

2. 단위별 회칙 및 세칙 개정안 취합

- '중대중심' 업로드 목적으로 단위별 개정 회칙, 세칙 취합 요청
- 수정 사항도 업로드 예정, 기한은 따로 없음

3. 단위요구안 작성

- 제도적, 정책적 개편 / 예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개선사항
- 단순 비품(의자, A4 등) 구매 요구 지양
- 1월 6일(월)까지 초안 취합하여 논의 후 중순까지 최종안 확정

4. 중앙대학교 2020 다이어리 제작

- 단과대별 재학생 수 파악 요청. (1월 6일 회의 전까지 취합)
- 2020 새내기 가이드북에 포함될 단과대 학생회 사진 및 소개 취합 요청.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경우, 비대위원장단 사진 혹은 단과대학 마크로 대체)
- 3월 중 배부 예정이므로 예상 입학 정원까지 포함, 졸업 예정자는 제외.

□ 논의 안건

1. 총학생회 국장 및 위원장 인준

(1) 총학생회 집행부 국장 인준 진행, 총 9단위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

집행위원장(이건우 경제학부 17), 디자인마케팅국장(민채원 간호학과 18), 소통국장(김민정 간호학과 17), 연대협력국장(정예원 경영학부 17), 일상사업국장(최성훈 전자전기공학부 15), 정책국장(김정태 전자전기공학부 15), 회계사무국장(심민지 사회복지학부 18)

(2) 총학생회 특기구위원장 인준 진행, 총 9단위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

문화위원장(정재윤 물리학과 17), 인권복지위원장(류승동 전자전기공학부 14), 졸업준비위원장(김성민 국어국문학과 17)

* 성평등위원장은 추후 인준 진행

2. 중앙감사위원회 공개 모집

- 지원서(워드 파일) 단위별 이메일로 접수 방식 / 구글 설문폼으로 간결한 지원 방식 두 방식에 대한 논의
- 단위별로 접수 경로가 다를 경우, 지원자들에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 서류만으로는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어려워 면접 진행.
- 면접 진행 시, 단순 지원동기 외에도 활동 계획 혹은 돌발상황 제시 등으로 실질적 업무수행능력 확인요망.
- 오프라인 및 온라인 단일 포스터 발행.
- 구글 설문폼을 통한 통합 신청 양식 제공, 지원서 양식 및 설문폼은 추가 피드백 예정
- 위원장은 22일까지 모집 후 23일 면접 진행 예정, 회칙에 의거 2019년도 2학기 기준 재학생만 지원 가능.
- 위원의 경우 22일까지 모집 후, 단위별 일정에 맞춰 선발 진행.
- 지원자가 없을 경우, 추후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 중앙감사위원회 회칙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감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추가적 개정 필요하다.

3.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성평등위원회 위원장단 파면 규탄에 대한 논의

(1) 3가지의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

하나, 새로 구성되는 62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성평등위원장단의 징계가 부당했음을 인정하라!
둘, 62대 중앙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인 학생 자치를 위해 회칙을 개정하라!
셋, 학생 자치를 침해하고 위협한 서울캠퍼스 61대 총학생회장 김민진은 사과하라!

-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논의로 나뉘어짐. (징계 수위, 징계 절차)
- **징계 수위에 관한 논의 :**
- 책임소재는 불명확하지만, 결정 과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논의가 없었기에 파면이라는 징계 수위는 부당하다. 선거운동본부의 연락처는 공적이라고 생각하기에,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사과문, 업무배제, 대면사과와 같은 수준의 징계도 고려해보았어야 한다.
- 회칙상 파면 징계는 총학생회장이 판단하는 것이기에, 징계 수위의 부당함은 인정하기 어렵다. 개인정보 유출은 큰 사안이기에 파면이라는 징계 수위는 적절했다. 장애학생회 등은 총학생회 산하기구가 아닌 개별기구이기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은 잘못되었다.
- 제공된 이메일, 연락처는 선본의 대표 연락처가 아닌, 선거본부를 대표하는 대표참관인(선거본부장)의 개인 연락처, 이메일 즉 개인정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대표참관인만이 개인 연락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관련 의사 표명이 가능하단 점에서 개인정보로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 제공의 본 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은 큰 잘못이다.
- **징계 절차에 관한 논의 :**
- 파면 결정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없었기에 징계 절차는 비민주적이며, 부적합했다. 총학생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평등위원장단 모두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질의서 전달 과정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
- 회칙상 파면 징계는 총학생회장이 판단하는 것이기에, 징계 절차는 부적절하지 않다. 질의서 전달 과정과 SNS 게시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가 없었기에, 과정 또한 부적합했다.
-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
- 파면 절차 또한 임명과 같이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총학생회장의 독단적 결정을 막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전체학생대표자 분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회칙개정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며,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 학칙개정에 관하여는 참석한 중앙운영위원 모두 공통적 의견.
- **세 번째**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
- 해당 요구사항의 대상이 62대 중앙운영위원회가 아니며 사과를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기에, 62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

(2) 위의 3개의 요구안을 전달해주신 모임에 답변 개념의 입장문 작성에 대한 논의

- 위치럼 파면이라는 징계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으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웠음.
 - 해당 내용은 매우 주관적인 가치판단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되어 '징계가 부당했는가'를 의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당 의결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의결을 진행하기를 요청.
 - **'해당 징계가 적절하였는가에 대한 의결 진행'에 대한 의결**
 - ▶ 총 9단위 중 4단위 찬성, 4단위 반대, 1단위 기권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
- 이 사안에 대해 의결하지 않기로 결정. 징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결정.
- 회칙개정에 대한 62대 중앙운영위원회의 입장은, 파면 사건의 정당성, 부당성과 관계없이 더 나은 학생사회를 위하여 충분한 논의 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모두가 공통적인 의사 표명. 따라서 이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통해 전학대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결정.

4. 단위별 새내기 새로배움터 일정 및 계획

- 경영경제대 2/28, 29, 3/1 (금,토,일) 예정, 12/28(토) 새터 기획단 발대식
- 사범대 3/6, 7, 8 (금,토,일) 예정
- 간호대 2/28, 29, 3/1 (금,토,일) 예정
- 사회과학대 총새주 모집 중, 일정은 미정
- 인문대 2/26, 27, 28, 29 (수,목,금,토) 중 2박 3일 예정
- 공대 2/28, 29, 3/1 (금,토,일) 예정
- 새내기 새로배움터 관련 업체 입찰 과정과 진행 상황에 대하여 학생처에 문의 예정.

□ 기타 안건

- 시험기간 사유로 12/16(월) 중앙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지 않으며, 12/23(월)에 진행 예정입니다.